

[큐티 클리닉 8]

본문 읽기의 4가지 식별 포인트

이상규 목사 / 2001 / 페이지수: 2

본문읽기를 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
우선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일 수 있다.

‘와 닿아’ 깨달아지는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말씀은 ‘씨’요, 그 말씀을 받는 밭은 ‘마음’이라고 했다. 따라서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에 와 닿게 된다. 아주 정확한 인식론이다.

또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일 수 있다. 깨달음이란 마음속으로 말씀의 종자가 들어왔을 때 마음이 그 종자를 파악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자는 종자일 뿐 그 깨달음은 묵상을 통해 싹이 나고 꽃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알고 싶은 의문이 일어나는 대목이 내게 주신 말씀일 수 있다. 주님은 더 깊은 대화로 이끄실 때 비유나 질문으로 호기심을 일으키신 후 우리의 질문에 답해주심으로써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다. 큐티란 이런 탁월한 대화법을 가지신 주님과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감성에 와 닿는 것, ‘느낌’이 있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일 수 있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단순히 지성적으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거의 예외 없이 감성적 느낌이 있다. 마음은 지성뿐 아니라 지정의(知情意)의 기관이 때문에 여기에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한 성경공부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감적(affective)으로 듣는 큐티와의 차이가 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묵상하라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신 말씀의 종자- 와 닿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의문, 느낌이 있는 말씀을 결코 왜곡시키지 말고 그 순수한 종자를 그대로 묵상 속에 가져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니 느낌을 더 멋진 해석이나 주석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처음 형태의 종자가 묵상 속에서 순수하게 발아하도록 성령께 맡기라는 것이다. 우리는 큐티에서 어떤 주석이나 전통적 해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종자에 함부로 손대지 말 것.’

하루에 ‘30분~한 시간’은 큐티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라. 큐티가 안 되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여하튼 시간을 주님께 드리라. 좋아도 좋다. 싫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라. 거룩한 시간낭비를 결단하라. 아버지는 하늘에서도 양식을 내리시고 반석에서도 깊은 수원에서 나오는 물을 주실 수 있다. 끝까지 그분을 기다리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눅 3:22)

* 출처 : 큐티와 일대일